



백봉 김기추 거사의 미발표 법문록



다시 읽는 효당 최범술 스님의 법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삼매 중 한 생각 일으킬 줄 알아야

성태를 길러라 ③

상대성을 우리가 쓰면, 선이다 악이다 상대성이다. 밝다 어둡다 상대성이다. 남자다 여자다 상대성이다. 그러기 때문에 제일 알아듣기 쉬운 것이 사람으로서의 남자와 사람으로서의 여자다 말이예요. 사람은 절대성 자리라면, 남자다 여자다 상대성이거든요. 선이다 악이다 그런 건데, 우리 보림선원에 오려 나오신 분들은 벌써 절대성 자리에 앉아가 있습니다. 어쩔 때는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앉아가 있으니 그 절대성 자리는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다. 착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아니다. 긴 것도 아니고 짧은 것도 아니다. 그 자리에 앉았거든요. 절대성 자리에. 그러하니 그 자리에 앉아야 바로 그것이 정정인데, 그러면 도력이란 건 어떤 거냐. 선과 악을 써, 밝고 어두운 걸 써, 남자와 여자다를 써, 길다 짧다를 써, 이것이 도력입니다.

오늘부터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오늘 들어가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정이 되어야 한다는 이 말인데, 항상 삼매 중에서 한 생각을 일으킬 줄 알아야 됩니다. 삼매는 또 무엇이나, 어디 눈하고 타협 안하는 것, 귀하고 타협 안하는 것, 헛바닥하고 타협 안하는 것, 이것이 삼매입니다. 타협을 하지 안 해. 그러기 때문에 생주이멸(生住離滅)이 전부 삼매입니다. 죽는다, 다르다, 좋다 나쁘다. 뭐 사실상 술 먹고 지라는 것도 삼매입니다. 본바탕 삼매 자리 가 있기 때문에 말이죠, 상대성으로, 물론 몰라서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업만 짓는 거지라는 말이죠. 업 짓는 것도 삼매가 짓지 누가 짓는 겁니까. 말이야 바른 말이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니, 참이 설법을 조금 알아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러하니 아까, 말한 대로 이거 여기서 끝내도록 합니다. 삼매를 놓치지 마세요. 삼매 그 자리가 바로 정정이고, 정정 그 자리가 바로 도력이다. 아까 말한 성태, 거룩한 태라.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들이 거룩한 태를 키우는 방향으로 나가세요. 이래 나가면은 부처라는 불자를 몰라도 됩니다. 이거 부처님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 불자, 술 줄도 몰라, 말을 옮길 땐 그리 해도 됩니다. 부처 불자, 이런 깨달음을 뜻하는 글자인데, 이거 대명사 아닙니까? 몰라도 삼매문제 해결되는 겁

니다. 만약 우리가 부처 불자를 알아, 부처라는 그 사실을 알아, 그래서 거기다 엮붙어, 엮붙어 놓으면 부처님 얼굴에 사마귀 하나 나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부처님의 그 정정 자리가 내하고 다를 것이 뭐 있습니까. 부처님의 정정 자리나 부처님의 도력이나 부처님의 성태자리나 내하고 꼭 한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잊어버리고 부처님에 얽혀서 엮붙는다 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벌써 자기 자성 자리에 하나의 오점을 딱 하나 찍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거 좀 영뚱하라는 이런 말도 있을 겁니다만, 어떻게든 여러분들은 발심해서 인연이 있어서 이러하니깐, 앞으로 이거 할 때는 꼭 나오도록 하십시오. 그러면은 오늘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
눈·귀·헛바닥하고
타협하지 않는 것이 '삼매'
그 자리가 정정이고 도력
마음 쓰는 방법이 '중요'”

사실 그렇습니다. 이 공부란 그렇습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그 바탕 자체를 확실치 않으면, 그렇다 해서 나쁜 것은 아니겠지요. 거긴 거기 따라서 어떤 인연관계를 맺었지만 말이죠 생사문제는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절대 그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벌써 이거는 뻔한 일이지요. 뻔한 일인데 뻔한 걸 두고 다른 걸 해봐요 무엇이 되겠는가.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나쁜 일을 해, 사도를 행해, 정인이 사도를 행하면은 사도가 바로 정도가 돼 버려. 또 사탄 사람이 좋은 일을 해, 좋은 일 하는 것이 바로 사법이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 하나에 달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삼마지인데 요거는 정을 뜻하는 것이고, 마는 가라앉을 정자, 정할 정자 가라앉는다 이렇게 하는 게 낫습니다. 가라앉음. 이걸 뜻하는 것이고 삼마지라 해도 되고, 따지 자라 해도 되고 타라 해도 좋는데, 이런 구멍을 뜻하는 것인데, 자 어떻게든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바른 그 본분사, 본

분사 여기에 들어가려면은 이걸 닦아야 되거든요.

그럼 이걸 뭣이나, 이걸 구멍입니다. 바른 구멍이 탁 트여야 됩니다. 바른 구멍이 안 트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 이론 가지고서 자기의 조그만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거 가지고서, 아 이러하니 이러하니 어쩌니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거기다 합리화시켜, 그건 만발 해봐도 자기 지옥 자기가 파는 거나 한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구멍은 그걸 뜻하는 것인데 옳은 소견을 탁 세워, 탁 세워, 그래서 숨을 마음대로 쉬어, 사람은 숨을 쉬어야 살거든요. 하기 때문에 말이죠 그 옳은 소견을 하나 딱 세워서 그래서 그대로 나가는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이전에도 그랬습니다만 공부하는 사람이 물론 견성을 하려고 애를 많이 썼어요. 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뭣이나 하면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어떻게 내 마음속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말은 안 해도 전부 공부를 열심히 할라 하는 사람들은 거기다 무척 애를 썼습니다. 말 표현만 아 이구 빨리 견성을 해야 되겠지 이래 했지 말이죠 어떻게 내가 마음가짐새를 잘 가져야 되겠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면 마음가짐새를 딱 가져 놓으면은 시일에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 마음가짐새를 내가 딱 정해 놓으면은 말이죠. 그 당채는 육신으로 보서는 시공간이 있어. 그러나 법신분으로 보서 무슨 놈의 시공간이 있노. 그런 데 관심을 안 가집니다. 실에 있어서.

그러니까 늘 하는 말이 어떻게든 말이 이 바탕, 바탕만 준비합시다 이거예요. 바탕만 준비해 해 놓으면 문제는 다 해결될 거나 한가지거든요. 왜 그러느냐. 바탕만 준비해 놓으면 그 당채에 있어서 그 당채에 있어서 말이죠 시공간이 끊어졌다는 것은 어떻게 입증이 되느냐 하면은 말이죠, 여러분의 색신, 모습 이거는 말이죠 물건이 있어. 어떤 모습이 있어. 하기 때문에 여긴 시공간이 반드시 따르거든요. 일년 이년 일초 이초, 이거는 시공간이 그대로 따르지만은 그러나 모습이 없어. 모습을 딱 부인해 버려. 부인이 아니라 거기 들어앉질 안 해. 들어앉지 않으면 거기 시공간이 불을 여가가 있나. 시공간 안 붙습니다.

백봉 김기추 거사 기념사업회 · 보림선원

진정으로 은혜 갚는 '대보부모은중경'

13. 보은계(報恩偈)

끝까지 불쌍히 여겨 주는 이런 은혜다. 언뜻 부모들이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었느냐는 생각이 든다. 그런 때도 있다. 그러나 자세히 조목 조목을 들어 보면 마침 부처님 은혜도 꼭 이와 같음을 알 수 있다. 부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뱃 속에다 넣고 얼마나 수호하시는가. 우리를 이걸 하나 키워서 발양하려고 얼마나 부처님의 제자 만들기고 고생을 하시느냐. 또 마침내 부처님 제자가 되었을 때는 얼마나 기뻐하실 건가. 부처님 제자 되기 위해서 엮붙은 어떻게 해야 되고 신앙은 어떻게 되는가. 앞에서 온갖 설명이란 것이 회담수호(懷耽守護), 임신수고(臨產受苦), 생자망우(生子忘憂), 유포양육(乳哺養育), 인고토감(咽苦吐甘), 회건취습(廻乾就濕), 세관부정(洗濯不淨), 윤행억념(遠行憶念), 위조악업(爲造惡業)에 든다고 옛부터 내려오는 말이다. 부처님, 불보살(佛菩薩)이 왕생회향(往生廻向)하시었다가 환상회향(還相廻向)하셨다는 것을 들어 위조악업이랄 수도 있다. 그러면서 저 중생이 단 하나라도 있는 동안에는 그 행(行)과 윤편(願)이 어디까지 계속되리라는 것은 구경연민(究愍憐愍)이다.

진정으로 은혜 갚는다는 것을 <대보부모은중경(大報父母恩重經)>이라 한다. 부모 이야기하면 제일 잘 알아들으니까 하는 말이 아니라, 열 가지 무거운 은혜, 십중대운(十重大恩)을 갚는다는 것은 실지로 결국은 불은(佛恩)을 갚는 것이 된다. 불은을 갚는다는 것은 동시에 중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 된다. 중생과 부처님 사이에는 조금도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다. 부처님 은혜 갚는 것은 곧 중생의 은혜를 갚는 것이다. 중생의 은혜 갚을 때는 대비전보화(大非傳普化)해야 한다는 것도 이에서 그런 것이다. 우리의 대자대비가 널리 퍼져야 되고, 퍼지는 그것이 곧 중생 은혜 갚는 길이며 또 이것이 동시에 참으로 부처님 은혜 갚는 것이다 하는 계승이다.

은혜 갚는 이야기에서 이를 받고 갚는 편에서는 이것이 은혜지만 베푸는 편에서는 자비요, 사랑이다. 다른 종교, 이를 테면 기독교에서는 이를 박애(博愛)라고 한다. 기독교는 하느님 아버지라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인간과 우주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을 그려서서 사랑을 받고 또 그에게 사랑을 갚는다는. 이런 얘기가, 사

랑이란 것은 어디까지나 심판에 의한 것이다. 심판이란 저울대에 달아 착한 것이 많은가 나쁜 것이 많은가 측정하고 이에 따라 우리 인간은 구원 받기도 하고 불교의 사랑인 대자대비는 이것과는 전혀 다르다.

기독교의 사랑이란 부부간의 애정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상대적인 사랑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불교의 자비는 어머니와 자식 간의 사랑이다. 어머니는 자식에게 아무것도

“
자비는 어머니의 사랑과 같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니
바라는 바도, 받을 것도 없다

“
십중대운(十重大恩) 갚음은
불은(佛恩)을 갚는 동시에
중생 은혜를 갚는 것이다.

“
바라는 것이 없이 무조건으로 사랑을 베푼다.
또 자식은 어릴 때에는 어머니에게 은혜를 갚겠다는 생각도 없다. 바라는 것도 없고, 갚아야겠다는 생각도 없다. 바라는 것도 없고 갚아야겠다는 의무감 같은 것도 없다. 부채 갚듯이 기어이 보상해 드려야겠다는 생각도 없다.

그리고 부모 된 분의 생각으로는 자식이 열이건 스물이건 다 한결 같이 소중한 것이다. 속담에 열손가락 깨물어 아프지 않은 것 없다고, 어느 자식에 대해서나 똑 같은 애정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들렁거리고 마음대로 안 되는 불량한 아들을 부모는 더 걱정하고, 불쌍히 여기고, 어쩌면 생각하는 것이다. 사

별신이거나, 여하튼 정신적으로 행동으로 육체적으로 불건실한 자식에게는 부모가 더 걱정하고 자비와 사랑을 베풀게 된다.

부처님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중생이 죄가 많고 번뇌 망상과 탐진(貪瞋癡) 삼독(三毒)이 가득하여 업장(業障)에 결박되어 있을 때 불쌍한 것들을 대자대비의 힘으로 견져야 되고, 안 견져야는, 제도 안 하고는 못배기는 바늘이 있다. 이는 영 아무런 조건 없는 사랑이라고 하여 무연대비(無緣大悲)라는 것이다. 절대적인 사랑과 대자대비가 있을 뿐이지, 여기에 무슨 조건이라든지, 나는 그렇게 하는구나,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겠다 하는 투의 그런 의무감이나, 인(因)에 대해서 과(果)를 기어이 보답해야 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는 것이다. 이 무조건 사랑 절대적인 사랑을 시무에(施無畏)라고 한다. 베푸는데 아무런 어려운 생각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것이다. 무엇이건 있는 대로 다 대자 대비를 베풀지 않고는 못배기는 심정을 시무에의 사랑이라고 한다.

흔히 우리는 나무대자대비관세음보살(南無大慈大悲觀世音菩薩)이라고 부른다는. 우리 인간이 살아 있는 이상 우리에게서 역시 부처님도 살아 있는 부처님이 좋다.

이것은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대자대비관세음보살 하고 명호를 부르면 우리의 소원대로 이루어진다. 나무관세음보살이라고 귀 의하면 무슨 소원이든지 간에 다 성취시켜준다. 이렇듯 베풀어 주는 대자대비를 무애시의 대자대비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사랑 베푸는 이의 심정을 헤아려 죄 많고 모든 번뇌 망상에 얽매어 업장이 무거운 우리로서는 부처님께 구제를 받고 사랑을 받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한 능히 사랑을 주고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갚는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다.

이 글은 지난해 12월 발간된 <효당 최범술 문집(편자·효당사상연구회 회장 최정복) 전 3권(전축사 권) 중 제 2권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세계 최초 수련 전용방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주문은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인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로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입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 세로 32cm × 높이(뒹뎀) 8cm]

기반방식 내부

메모리폼, 폴리우레탄

나만의 완성세계 기반, 기반, 기반

아직에 10분, 저녁에 10분, 수면 기반, 기반, 기반

www.hyunbulshop.com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108 염주세트

값 30,800원

· 구성 : 108염주 + 합장주

· 크기 : 직경 10mm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옵니다.

www.hyunbulshop.com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저외전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나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